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안

의안번호	제396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발의년월일 : 2000. 10. 19

발 의 자 : 임해규 의원 외 13인

1. 주 문

- 법무부에서 영등포교도소를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부당함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별첨과 같이 결의한다.

2. 제안이유

- 부천시의회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교도소 이전계획에 부천시가 그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 법무부는 그간 영등포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을 검토해 오다가 우리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자 민간건설업체가 교도소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승인해주고 민간업체가 교도소를 설립한 후 이를 영등포교도소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

도소이전사업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민간건설업체에서 옥길동의 부지매입을 약정하기 위해 지주들을 접촉하고 있다.

- 부천시는 인구과밀의 도시로서 도시기능에 비해 녹지가 매우 협소한데 개발 가능한 마지막 보루인 소사구 옥길동 일원에 교도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판단한다.
- 법무부가 이 반대결의문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관공동체를 구성하여 부천시로의 교도소 이전계획이 완전히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3. 첨 부 :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문(안) 1부

영등포교도소부천이전반대결의문(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지방자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영등포교도소 부천이전검토에 따른 반대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전국 2위이고 녹색지대가 협소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가뜰이나 좁은 부천에 4만여 평의 녹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교도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영등포교도소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이전 장소를 부천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부천의 실정과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경솔한 결정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3. 이전을 검토하는 소사구 옥길동 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일체의 개발이 중단된 채 서울과 부천의 화려한 도시 그늘 밑에서 문화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100여 세대가 살아오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이다. 그간의 소외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복지 공간을 확보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교도소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4. 또한 인근 계수동과 범박동에 대규모 주택단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도소를 이전한다면 또다시 아파트단지 옆에 짓게 되는 졸속 행정이 될 것이며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울분이 열 배, 백 배로 가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비밀리에 옥길동을 현지조사하고 법무부가 새로이 추진하는 민간교환방식에 의해 건설업체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발상인 바 이를 즉각 취소하고 80만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5. 아울러 부천시도 시민의 뜻에 따라 옥길동으로 교도소 이전을 반대하고 이 지역을 향후 부천시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 10. .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